

국가형제회장의 메세지

Tom Bello, OFS

“예수님은 우리가 실패하도록 부르지 않으십니다”
재속 프란치스코회의 봉사직



지난 8 월 국가형제회 영적 보조자인 Stephen Gross 수사(OFM Conventual)와 Divine Mercy 지구 형제회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연중 19 주일인 그날의 복음에는 마태오 복음서에만 나오는 베드로가 물위를 걷는 유명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호수 위를 걸으시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
“유령이다!” 하며 두려워 소리를 질러 댔다.
예수님께서는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시거든 저더러 물 위를 걸어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오너라.” 하시자,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 갔다.
그러나 거센 바람을 보고서는 그만 두려워졌다.
그래서 물에 빠져 들기 시작하자,
“주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하고 소리를 질렀다.
예수님께서 곧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고,
“이 믿음이 약한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마태 14,26-31

우리가 잘 아는 이 복음으로 저도 여러번 강론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Stephen 수사처럼 설명해 본적도 없었고 그런 설명을 들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죄송하게 그분의 말씀을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제가 기억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우리가 실패하도록 부르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세리 마태오를 붙렸을 때, 마태오가 실패하도록 부르지 않으셨고, 안드레아, 베드로, 야고보와 요한에게 “나를 따르라”고

하셨을 때, 그들이 그분을 따라와서 실패하도록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오너라” 하셨을 때, 베드로가 와서 물에 빠지라고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형제회 선거에 갈 때마다, 모든 이들이 그 일과 직책에 적합한 사람이라고 추천하는 데, 본인은 정작 저에게 “아직 준비가 안되었습니다.”, “저는 적합치 못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특히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데 저는 항상 놀라곤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디 있습니까? 이제 짚은 예수님이 사랑과 자비로 저와 여러분같은 죄인을 한명 더 도우시리라는 것을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곧 손을 내밀어”, 또는 마태오 복음 마지막에 나오는 “보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마태 28,20)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까?

형제회 봉사자 선거에서 ‘저는 아닙니다’ 라고 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성령의 도움을 받은 다른 형제회원들이 “같은 죄인”을 자신들의 봉사자로 선출할 기회를 빼앗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느님 그분께서 능력있는 사람을 부르실 기회를 빼앗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부르시어 그 사람에게 능력을 주실 기회까지도 빼앗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성령과 여러분의 형제회원들에게 ‘그 사람은 안됩니다’ 라고 할 기회를 드립시다. 혹시 형제회원들이 “YES”라고 할지도 모르지요.

봉사자직을 사양하려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 모두는 양심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과 주님의 백성을 위한 봉사는 우리가 주님을 보다 더 믿고 사랑할 때만 성공한다고 Stephen 수사는 말합니다. 악마와 육체와 속세의 큰 속임수는 어떤 이유를 대서라도 우리 자신이 죄인이고 보잘것 없다고 믿도록 합니다.

물론 우리 모두는 죄인이고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신이 없고, 두려움과 불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하느님과 이웃에 대한 믿음과 희망과 사랑이 모자라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을 충분히 사랑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충분히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을 믿지 못하거나, 주님과 이웃을 위한 새로운 봉사를 시작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실패하리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초대를 절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결코 “YES”라고 하지 않습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우리가 실패하도록 부르지 않으십니다.”라는 Stephen 수사의 말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재속 프란치스코의 삶, 결혼 생활과 가정 생활, 직장 생활 등을 돌아봅시다. 주님이 우리가 안주하는 곳에서 불러내신다고 생각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라고 대답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마리아와 모든 성인들이 결국은 드린 대답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의지를 주님께 드리고, 주위의 폭풍과 거센 바다, 우리 안의 나약함과 두려움을 잊고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제가 모든 선거에서 항상 “재속 프란치스코회의 봉사직에 추천되면 대답은 무조건 ‘예’ 입니다.” 라고 하는 까닭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실패하도록 부르시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실패할까요? 왜 베드로가 물위를 걷기 시작하자 돌 같이 가라앉았을까요?

Stephen 수사의 말이 여전히 옳다고 생각합니다, 저 자신의 경험과 관찰로 보면 우리의 가슴, 그리고 저의 가슴에는 주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충분히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고 저는 쉽게 마음이 미혹해집니다. 어쩌면 당연한 일이지요. 바다위의 베드로처럼 바람은 거세고, 파도는 항상

출렁거리니 가야 할 길이 불안하고 위험하게 까지 보입니다. 누구라도 속으로 자신이 없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죄인이고 약하고 실패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또 실패할까요? 우리가 만약 주님을 완전히 믿지 않고, 충분히 기도하지 않고, 자신과 어려움만 생각해서 주님과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잠시 눈을 떴다면 반드시 실패할 것입니다.

만일 정말 주님이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기심이였다면 어떨까요? 예, 만일 이기심 만이었다면 그것은 확실히 실패할 징조입니다. 그러나 솔직히 재속 프란치스코회에서 30년 이상 있으면서 자신의 이기심때문에 불리운 봉사자는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각급 형제회의 임원이 되는 것은 명예나 권력이나 행운이 아닙니다. 만일 당신이 형제회의 임원이라면 당신이 무엇을 하는지 이 세상에서 누가, 몇사람이나 알고 상관 하겠습니까? 당신 가족 중에서는 몇이나 알고 상관합니까? 당신 형제회에서 몇사람이 당신이 한 말과 행동에 대해 아부합니까? 혹시 수당은 얼마나 받으십니까? 그런 이야기가 아니지요.

단위형제회, 지구형제회, 국가형제회, 국제형제회에서 만난 수많은 선출직, 임명직의 임원들 대다수는 이기심 때문이 아니라 형제회에 대한 봉사와 사랑때문에, 형제 자매들과 하느님과 자신들에 대한 책무때문에 봉사하고 있습니다.

이 봉사는 주님에게서 오는 것이고, 이 부르심은 실패할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려움이 있을까요? 당연하지요. 그러면 그 어려움이 어느 때는 고통을 가져올까요? 우리는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할 것 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를 따라 십자가로 불리움 받았습니다. “십자가의 실패”라는 축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매년 9월 14일은 금년처럼 일요일이라도 “성 십자가 현양 축일”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면서 고난을 받을 때 우리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주님께로 연결된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우리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신앙의 근본에는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과 이웃을 위하여 봉사할 때 고난을 두려워 하지 마십시오. 십자가를 두려워 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가하기를 바라시는 것을 하지 않음을 두려워 하십시오.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에 대한 믿음과 희망과 사랑을 우리 마음에 채우기만 하면 할 수 있는데도 도망하려는 것을 두려워 하십시오. 앞으로 한 걸음 나와서 형제 자매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 그럼으로써 주님 그분께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얼마나 여러번 놓쳤습니까? (마태 25,45 참조... 너희가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주지 않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주지 않은 것이다.)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는 재속 프란치스코 형제회의 봉사직을 왜 그렇게 두려워 하고 있습니까? 왜 저희는 ‘못합니다’ 하고 등을 돌립니까? 좀 더 믿고, 바라고,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희의 눈과 마음이 항상 주님을 향해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저희가 밖의 심한 파도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두려움에 신경쓰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만일 저희가 물에 빠지기 시작하더라도 항상 당신께서는 저희를 실패하도록 부르지 않으신다는 것과, “주님 저를 구해주십시오” 이 세마디를 기억하고 믿게 하소서. 그러면 당신은 당장 손을 내밀어 저희를 잡아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